



# 금강산

10

2026년

루게 제446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6 ISSN 1727—9062



표지: 3인군상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높이 추켜든 마치와 낮과 밝은 조선로동당의 마크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것을 상징한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2 ||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어

8 || 우승의 금메달로

일화

9 || 위민헌신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0 || 자기꽃병

11 || 노래들에 비끼는 당의 모습

12 ||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당

14 || 영원한 승리의 기치 《리.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6 ||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인상기

18 || 강동군병원에서

18 || 국제친선전람관에서

시

19 || 생의 메아리

19 || 오늘도 영생한다

교향소식

20 ||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26 || 형제미술가

28 || 다종화, 다양화실현에 힘을 넣어

30 || 기다리는 수업으로

32 || 바드민턴선수들이 자란다

34 || 악성종양치료에 인터벤션기술을 도입하여

36 || 관록있는 민족예술창조집단

40 || 순간을 보존하는 사람들

42 || 보양생들의 보금자리

44 || 물놀이장에 넘치는 웃음소리

46 || 조선옷의 특성을 살려

48 ||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로

50 ||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52 || 전통음식 깽백숙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4 || 칠성문

지명 유래

55 || 신의주시

56 || 약산동대

편집: 김광수, 서철남, 문송연



체육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여

현시기 국제경기무대는 체육인들의 육체기술적, 정신적대결장인 동시에 체육과학기술의 치렬한 경쟁마당으로 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체육과학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체육과학기술을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

고있다.

2012년 9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기에서 이겼으면 어떻게 되어 이겼고 패하였으면 왜 패하였는가 하는것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2013년 3월 4.25국방체육단(당시)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아주시면

서 우리 식의 활쏘기기술과 전술체계,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완성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고 그해 7월 김일성경기장에 나오시여 4.25팀과 화불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면서 축구를 발전시키자면 우리 식의 축구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고 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2014년 10월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과 체육부문 책임일군들에게 우리 식의 과학적인 경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경기활동에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체육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곧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기 위한 애국

사업으로 된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권위와 지위에 맞게 메달 획득수를 지속적으로 늘여나가며 우리 나라를 하루 빨리 체육에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세우시기 위해 그이께서는 체육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5년 3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는 체육을 과학화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려는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강한 정신력에 높은 체육과학기술이 안받침



국제축구연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제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선수들



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

되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체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선수, 감독들이 체육과학지식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며 지난 시기의 낡은 경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훈련과 경기, 체육교육과 후비육성을 비롯한 체육사업의 모든 분야를 현대 체육과학에 기초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현대 과학기술에 기초한 훈련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우리 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경기를 전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도입하며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전술을 부문별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적인 방법들을 잘 세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고 체육과학연구부문과 각 체육단들에서는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는것과 함께 훈련과 경기를 철저히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체육과학부문의 연구사들은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활동에 실지 도움을 줄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쥐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켰으며 종목별훈련과 경기를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여러 체육단들에서도 현대적인 정보설비와 측정기재, 의료설비들을 갖추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1위를 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우리 나라 대표항팀의 여자축구선수들

심화시켜 선수, 감독들의 훈련과 지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각급 체육지도위원회들에서는 체육교수훈련에 필요한 여러가지 측정기재들을 체육단과 태권도선수단, 과외체육학교들에 갖추어주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최근년간에만도 우리 체육선수들은 국제경기들에서 많은 컵과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지난 몇년간 여자축구와 럭기종목에서의 성과는 세인을 경탄시키는것이였다.

여자축구선수들은 2024년 아시아축구련맹 20살

미만,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와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련승을 이룩하고 한해에 4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리였다. 럭기선수들도 2024년 국제럭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컵경기대회, 2024년 아시아럭기선수권대회들에서 수십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1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2025년에도 우리 여자축구팀은 국제축구련맹 2025년 17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함으로써 2련승을 기록한 팀, 월드컵을 네차례나 들어올린 강팀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럭기선수들은 2025년 국제럭기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만도 17개를 획득하였으며 나라 및 지역별메달순위에서 1위를 하였다.



제11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선수들

여자축구선수들은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 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한데 이어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이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보유자권맹전에서 1위를 하여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2026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력기선수들은 금메달 18개를 포함한

3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세계신기록, 아시아 신기록들을 수립하였다.

세계의 언론들과 체육전문가들, 애호가들은 《조선의 축구신화는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조선은 이겨도 크게 이기고있다.》라고 하였다.

글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2026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선수들의 경기장면들





# 우승의 금메달로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의 금메달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었다.

지난 1월말부터 2월초사이 로씨야에서 진행된 2026년 이완 야르킨컵 국제레슬링경기대회에서 원명경, 최효경, 손일심, 김옥주, 박설금선수들이 여자레슬링 50kg급, 53kg급, 57kg급, 62kg급, 68kg급경기에서 모두 이기고 각각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여자선수들이 10개의 금메달중 5개의 금메달을 쟁취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에서 조선의 여자선수들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여자레슬링기술이 최고이다, 이번 여자레슬링경기는 조선판으로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026년 폰스판쎌 꼬로트쑈브기념 국제권투경기대회 여자 50kg급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한 김은옥선수가 맞다든 모든 선수들을 5: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물리치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으며 최우수여자권투선수상을 수여받았다.

2026년 대련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우리 여자마라손선수 4명이 참가하여 모두 6번째 순위권 안에 들어 사람들을 놀래웠으며 전문가들은 소문없이 성과를 이룩한 무시할수 없는 팀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5월 인디아에서 진행된 2026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의 미더운 력기선수들은 세계 및 아시아신기록을 세워 지난해에 이어 력기계를 또다시 놀래웠다.

이 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개, 도합 30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8건의 세계신기록과 10건의 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력기선수들이 세계력기계를 놀래우고있는 때에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이 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와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리었다. 아시아축구련맹의 한 성원은 경기대회의 4개의 상인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 최우수문지기상과 경기도덕상이 모두 조선팀에 수여되었는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아시아축구련맹 성원들과 해당 보장성원들도 조선팀의 선수들은 다른 팀들과는 달리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레의도 바르다, 이 모든것이 경기에서 우승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은 아시아축구계의 최우수여자축구팀으로서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5월 23일에 끝난 이번 련맹전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여자축구팀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예선단계경기로부터 결승경기에 이르는 9차례의 대전에서 도합 36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련맹전 우승컵을 쟁취하였으며 김정영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여받았다.

이밖에도 2026년 신대북시공개륙상경기대회에서 박설경선수는 여자 5 000m달리기경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강련희선수는 여자 3 000m장애물달리기경기에서 1위를 하였다.

몽골에서 진행된 2026년 울란바타르공개레슬링경기대회 여자레슬링 50kg급, 53kg급, 55kg급, 62kg급, 65kg급경기에서 김선향, 오경령, 최효경, 김옥주, 문현경선수들이 각각 1위를 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온 나라에 환희와 기쁨을 더해주었다.

글 김대철

일 화

# 위민췌진의 나날에

## 체육발전의 길을 밝혀주시어

1946년 10월 해방후 처음으로 체육인대회가 열리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체육인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어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연설에서 그이께서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 청년, 학생들에게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빼앗았으며 그들에게 배울 기회도, 몸을 단련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고 단죄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해방된 민주조선의 체육은 몇몇 개인선수들을 내세우기 위한 체육에 그쳐서는 안될것이며 또한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놀음거리로 되어서도 안될것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체육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건국사업의 중요한 고리로서 발전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체육을 대중화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서도 언급하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제시하시으로써 주체체육발전의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 경기담

1976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격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여주시실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선수에게 권총을 쥐여주시며 한번 쏘보라고 이르시었다.

선수생활을 오래 한 그였지만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려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권총으로 그이앞에서 사격을 하게 되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총성이 울렸으나 선수의 사격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여전히 밝은 웃음을 지으시고 이번에는 다른 선수에게 한번 쏘보라고 하시었다.

그도 역시 평상시보다 사격성적이 좋지 못했다.

일이 이쯤되자 선수들과 감독들은 몸둘바를 몰

라하였다.

그이께서는 사격을 잘하려면 담이 커야 한다고 신심을 주시면서 선수가 사격하기에 앞서 8점에 맞겠는가, 9점에 맞겠는가 하는데 지내 신경을 쓰면서 총을 쏘면 잘 맞지 않는다고, 이것은 선수의 담이 크지 못하기때문이라고 일깨워주시었다.

## 기념사진을 세차레나 찍어주시며

2013년 7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동아시아컵여자축구경기대회에서 1등을 한 여자축구선수들을 만나주시었다.

여자축구선수들이 경기대회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높이 치하하신 그이께서는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꿈결에도 뵈고싶던 그이를 만나뵈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게 된 여자축구선수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여자축구선수들과 함께 4.25 국방체육단(당시)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사이의 활쏘기경기와 4.25팀과 화불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었다.

경기가 끝나자 그이께서는 남자축구선수들을 몸소 만나주시었다.

땀에 젖은 선수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축구선수들의 경기성적을 축하해주시고나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여자축구선수들은 자기들이 좁전에 받아안았던 사랑은 감감 잊기라도 한듯 남자축구선수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을 부러움속에 바라보았다.

이윽고 기념촬영이 끝났을 때 그이께서는 여자축구선수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고는 오라고, 축구장 끝문대를 배경으로 집체사진을 한장 더 찍자고 하시는데였다.

그러시고는 책임감독과 따로 사진을 찍고 선수들과도 개별사진을 찍겠다고 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여자축구선수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세차레나 찍는 행복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 자기꽃병



자기꽃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8년 9월 8일 항일혁명렬사 박길송가족이 삼가 드린 선물이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잠시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항일혁명렬사가족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

## 노래들에 비낀 당의 모습

장장 80여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로동당!

기나긴 세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잡았는가 하는데 대한 대답이 있다.

그것은 당에 대한 송가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처음 우리 당에 대한 송가문학은 주로 서정시 형태였다. 그 첫 작품은 1946년에 창작된 《인민의 바다》였다.

서정시로 분출된 인민의 흠모심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이르러 당에 대한 노래로 울려 퍼지게 되었다.

송가 《당의 기치따라》, 《당은 우리의 선봉대》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그중에서도 절정을 이루는것은 당을 어머니로 칭송한 가요들이다.

어머니!

어머니는 생명을 주며 끝없는 사랑을 준다. 어머니는 자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

바로 이런 따뜻하고도 자애로운 어머니를 인민은 당의 모습에서 보았다.

1964년에 당을 어머니로 칭송한 첫 노래인 《어머니당이어》가 나온 후 당에 대한 많은 송가가 창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어머니당을 노래합니다》, 《어머니당의 품이어》, 《당의 품은 한없이 파사로워라》, 《어머니당의 품》과 같은 송가들이 창작되었고 1980년대에는 《당은 나의 어머니》, 《어머니당중앙》,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어》, 《당은 어머니모습》, 《그대밖에 내 몰라라》, 《당은 어머니나는 그 아들》과 같은 작품들이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졌다.

그후부터 오늘까지 《그 품은 하나》,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는 어머니》, 《내 심장의 목소리》, 《어머니생일》, 《당이어 나의 어머니시여》,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와 같은 송가들이 창작되었다.

노래들의 창작년대와 제목들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우리 당을 생을 주고 운명을 지켜주는 어머니로 칭송하였다.

하다면 어찌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를 뜻하는 당에 피와 정이 흐르는 어머니라는 고귀한 부름을 드리였는가.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받들기 위해 역사에 출현

한 인민의 당이다.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80여년이라는 긴 세월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근본리념으로 내세우고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확고히 고수해 왔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로선을 세우고 정책을 작성한 조선로동당이다.

하지만 당이 내세운 구호나 강령만을 보고 인민은 송가를 짓지 않는다. 집권당의 정책과 실시행동이 누구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가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것이다.

인민의 눈에 비낀 당은 언제나 자식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고심하고 자식때문에 잠 못드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강토를 불바다에 잠근 전쟁의 참화,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정치동란과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위기 등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위급할 때 당은 언제나 어머니가 되어 인민들곁에 있었고 인민의 운명을 지켰다.

우리 인민은 시련의 난파도속에서도 언제 한번 마음의 안정을 잃어본적이 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승리만을 이룩하였다.

어머니란 말과 함께 우리 당에 대한 칭송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었다.

기쁠 때도 힘들 때 누구나 어머니를 찾았고 대를 이어가며 위대한 어머니 조선로동당을 노래하였다.

삶의 희열과 로동의 보람을 노래해도 우리 인민은 제일먼저, 제일 숭엄히, 제일 열렬하게 당을 칭송하였고 아름답고 행복넘친 생활의 그 어느 갈피에나 깃들어있는 당의 은덕을 노래하였다.

하기에 노래 《어머니당이어》를 작사한 김재화시인은 생전에 자기의 창작수기에서 이 세상에 어머니란 이 말밖에 조선로동당에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찾을수 없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던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글 임향심

#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당

지난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가 진행되었다.

강습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려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충진 해온 사상적자원,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것이 주체의 사상론이며 우리는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들과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무엇도 혁명사상의 힘을 대신할수 없으며 이길수는 더욱 없다고 하시였다.

이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힘있게 과시되고 지난 10여년의 려정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된 우리 당의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전면적부흥의 활로를 줄기 차게 열어나가실 그이의 견결한 의지의 선언과도 같다.

돌이켜보면 80여성상의 집권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긴 우리 당의 력사는 사상의 힘으로 전진해온 력사이다.

우리 당은 사상사업으로 천만인민의 정신력을 양양시켜 혁명의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고비를 혁명의 일대 고조기로 전환시켰으며 우리 혁명은 사상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더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사상의 힘으로 건국의 초행길을 헤쳐고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의 성공과 수십년간의 포성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도 주체의 사상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사상제일주의야말로 조선로동당의 혁명방식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시고 사상사업의 혁신과 발전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시였다.

당사상사업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거대한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해나 가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과 의지는 사상사업강화의 전환적계기로 된 중요당회의들과 우리 당의 사상진지는 공격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사상,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 나갈데 대한 사상,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놀뛰는 불굴의 녀의 계승이라는 독창적인 사상들에 도 깃들어있다.

그이께서는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유명한 명제도 내놓으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으로 만사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을 전면적발전의 시대적요구로 제시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에서도 각급 당조직들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 사상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을 당사업의 근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날로 확대심화되고 혁명의 전진속도가 빨라질수록 당사상사업에 더욱더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며 사상사업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실 때에는 다음해 대상건설에서 부족되는 세멘트생산을 위한 해결방도를 경제적인 수자일면에서만 찾는 일군들의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시면서 수판알만 튕겨서는 절대로 나올수 없는 증산의 방도를 대중의 사상정신적양양에서 찾을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기적적증산의 불길을 지펴주기도 하시였다.

어느한 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의 됬됨이 달라지며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데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시며 사상의 힘, 정신력으로 만단을 헤쳐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고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하

여 전체 인민이 당의 사상으로 굳게 뭉치였으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수십년세월, 지어 대를 이어가며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애국자들이 무수히 자라고있다.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속에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으로, 산골과 섬마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는 탄원열기가 높아지고 거창한 건설장들에서 젊음을 바치는것을 청춘의 영예로 간주하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사상중시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가장 위력한 보검임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우리 혁명은 사상의 위력으로 더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글 김슬기

## 정치용어해설

### 사상제일주의원칙

사상제일주의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모든 문제를 사상중시, 사상개조, 사상발동의 방식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혁명원칙이다.

사상제일주의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집권당의 존립과 강화발전의 선결조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실현의 근본담보이다. 사상이 없이는 혁명적당이 태어날수도 존재할수도 없으며 사상사업을 내놓은 당사업과 혁명투쟁이란 있을수 없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

사상제일주의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중시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중시한다는것은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것이다.

다음으로 사상개조사업을 사회주의집권당과 국가의 중핵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사상개조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육성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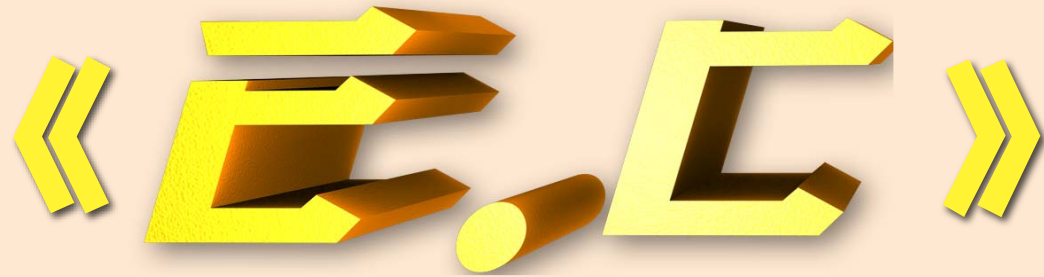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한다는것은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한다는것이다.

\*

\*

\*

# 영원한 승리의 기치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은.치》의 기치가 나뭇기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세기가 되었다.

기나긴 세월과 더불어 산천도 몰라보게 변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10대의 나이에 새형의 혁명적전위조직을 결성하시어 주체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당의 역사적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돌이켜보면 1920년대중엽 화성의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그이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을 떠메고나갈 전위조직을 결성하시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조직을 내오기 위한 핵심성원들의 예비회의를 여시고 자신께서 구상해오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화전에서 조선혁명가들의 참다운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이고 최종목적은 조선

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였다.

진정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조직이였고 그 결성은 로동계급의 새형의 당,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 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명체였다고 회고하시였다.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

첫 혁명적전위조직, 《은.치》의 강령에 맥박치는 그 리념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뿐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였고 승리의 기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건결히 투쟁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은.치》의 강령에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리념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포이며 지구상 모든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선언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은.치》의 강령에서 제국주의와의

판가리결전을 선포하신것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총대로써, 무장한 인민의 힘으로써 제국주의를 기어이 때려부시려는 건결한 반제적립장과 신념의 분출이였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침략과 약탈이며 그 수단은 군사적폭력이다. 따라서 힘을 동반하지 못하면 정의를 지킬수 없고 나라의 자주독립도 이룩할수 없다.

혁명투쟁은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총대에 의거함이 없이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는것,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신 혁명의 심원한 원리였다.

그 고귀한 철리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힌 력사적인 카뮈회의에서 무장투쟁로선에 반영되어 조선의 혁명가들에게 자력독립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심어주었다.

조선인민의 첫 혁명적무장력이 탄생한 4.25(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의 위대한 사변은 물론 조국해방(1945년 8월 15일) 위업의 성취도,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공인된 조국해방전쟁(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에서의 빛나는 승리도,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의 승리도 그 리념의 정당성을 그대로 실증하고있는것이다.

《은.치》의 강령에서 천명된 자주의 리념은 우리 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그 진리성과 불패성이 남김없이 파시되였다.

《은.치》의 결성으로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은.치》의 강령은 우리 당강령의 기초로 되였고 《은.치》가 내세운 자주의 리념, 자주의 원칙은 우리 당창건과 활동의 원칙으로,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근본리념으로, 조선

혁명가들의 정신으로 승화되였다.

토지개혁방침, 농업협동화방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은 자주의 리념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한것으로 하여 그 어떤 력사적 환경과 조건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되어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찬 승리의 한길로 견인하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던 나날들에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안겨주신 자주 사상과 리념으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전변을 이룩할수 있었다.

《은.치》의 리념과 정신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왔기에 우리 당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모든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주체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걸어올수 있었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은.치》의 리념과 정신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국가부흥의 새 력사를 장엄히 써나가고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시고 이 땅 어디서나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온 나라 곡곡에서 이룩되는 거창한 전변들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자존의 리념과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곳곳이 이어가는 당의 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이다.

글 임향심

## 쏘베트나, 인민혁명정부나?

(전호에서 계속)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얹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립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수 없었다.

《동장영동지, 프랑스로동계급이 꿈문을 내놓을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로씨야의 쏘베트가 맑스주의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쏘베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로씨야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쏘베트는 역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쌈지를 꺼내어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니었는데 로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때문에 유격구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니었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말을 반박하지 않는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동장영을 만난 후 나는 리용국, 김명균, 조창덕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쏘베트를 대신하는 혁명정권을 세울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동안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형태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그때 그 기준이라는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인민을 위한 투사들이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총복들인것만큼 우리가 수립하게 될 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리익을 옹호할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환영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나서 동무들은 모든것이 명백해진다, 각계각층 인민이라는 범주속에는 로동자와 빈고농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이 포괄되겠는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부는 통일전선적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전선적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권으로 될것이다, 그런 정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고 하면서 환성을 올리였다.

나는 통일전선적정부를 세우되 로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력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력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로선이라고 불리워지고있는 정권건설로선이다.

가결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것이다.

우리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만지방에 적합한 정권형태로 인민혁명정부를 선택한것은 그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알맞고 인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 리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었다. 우리는 정권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에서 찾고 인민의 리익을 얼마나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데서 찾았다.

이처럼 정권형태를 인민혁명정부로 결정한 다음 우리는 어느한 단위에서 먼저 시범을 창조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다른 혁명조직들에도 일반화하자는데 합의를 보았다. 시범단위로는 5구가 결정되었다.

나는 왕청5구에 내려가서 리용국, 김명균 등과 함께 인민혁명정부 제5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

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사수평으로부터 10리쯤 떨어진 하모다니촌에서 진행되었다. 그 날은 모쁘르기념일이였다. 모쁘르란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략칭이다. 1923년에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서는 희생된 혁명투사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모쁘르기념의 날로 정하였다.

5구쏘베트정부 회장인 조창덕은 쏘베트정부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는 그 집에서 20명 가량 되는 가야허지방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쏘베트정부대신 새 정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정부로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는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로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하고 살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수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쏘베트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것과 이 정부는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것입니다. 여러분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것, 로동의 권리를 가지는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것입니다.》

가야허의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로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는 인민혁명정부의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에 앞서 쏘베트정부가 몰수했던 개인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모조리 되돌려주었다. 몰수후 파손

되었거나 소비해버린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량성룡은 목재소를 치는 전투까지 조직하였다. 그 전투에서 로획한 소와 말로 농민들은 그해 봄분여받은 땅에서 발갈이를 하였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 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내용은 후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수평마을에 갔을 때의 인상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것은 현당서기 리용국의 모습이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출판에 뛰어들어 축제의 기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한쪽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출판에서 슬그머니 떨어져나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서기동무, 모두가 춤을 추는데 이게 웬일이요?》

리용국은 두볼에 흘러내린 눈물자국을 씻을념도 없이 한숨을 무겁게 내쉬었다.

《저 사람들이 어째서 나한테 침을 뱉지 않는지 모르겠소. 왕청사람들이 좌경때문에 고통을 받은게 다 나때문이 아니겠소. 그런데 이 고장 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 말이요.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분이야 김대장이 아니요.》

《우리 인민은 인정에 무른 대범한 인민이요. 그들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서기동무에게 감사를 드린것은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달게 받아들이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요. 이제는 우리 다같이 래일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다음호에 계속)

## 강동군병원에서



제주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수련

이번에 조국을 방문하여 많은 곳을 참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강동군병원이 제일 인상에 남았다.

안정감을 주는 병원의 외형도 멋있고 치료실마다에 갖추어져있는 설비들도 선진적이었다.

병원은 지방병원의 기존관념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에서 진행되는 지방발전사업에 대하여 출판물들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생활력을 실지 내 눈으로 보니 정말 놀라웠다.

이 모든것은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발전하고 변모되는 부흥의 새시대에 지방인민들도 수도시민들과 다름없는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으며 무병무탈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숙원이 안아온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이런 병원이 10년안에 모든 군들에 세워진다고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진다.

정말 조국에 올수록 가슴은 긍지로 부풀고 마음은 마냥 기쁘다.

## 국제친선전람관에서



제주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명옥

조국방문의 하루하루는 감동의 연속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번에 나는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전람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보내여온 진귀한 선물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하나하나의 선물들에서 나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선물들이 인민의 재부로 되었으니 놀랍기만 하다.

세계에는 이름난 정치가들이 적지 않지만 절세위인들처럼 자신들께서 받으신 선물들을 인민의 소유로 되게 하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여태껏 들은적이 없다.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다.

제주조선인청년협회 김길지구협회 회장이며 규률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원동포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고 창작한 시들을 아래에 전한다.



시

## 생의 메아리

주작봉마루의 영생하는 투사들  
생이 끝나는줄 알면서도  
오늘을 굳게 믿어 하나같이 웨쳤어라  
수령만세를! 조국번영을!

오늘도 들려온다  
해방의 날 굳게 믿어 귀한 생 아낌없던  
그분들의 생의 메아리  
수령과 조국을 위하여  
간고한 그 세월의 언덕에서  
번영하는 오늘의 령마루에로 이어진 그 메아리

한몸바쳐 조국의 래일을 잇고  
이 땅의 세월을 길이 이어준  
그분들의 고결한 삶의 박동은  
능금불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용한 인민의 줄기찬 진군곡인듯

못다 누린 복과 귀한 모든것  
아낌없이 고스란히 후세에 물려준  
그 고귀한 생의 메아리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우에 떠오른  
우리 국기의 세찬 퍼덕임  
그 거룩한 나뭇김소리인듯

자기만을 위한 생엔  
여운이 없고  
애국으로 뿔뿔 뿔 뿔  
영원히 있거니

참된 삶의 메아리여 그것은

우리 세대가 닦아야 할  
영생하는 심장의 고동소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바친 생의 가치도 변하던가  
해가 갈수록 그 진리 더욱 빛나여라  
오, 애국으로 바친 생은  
조국과 더불어 후손들과 더불어  
세월의 끝까지 영원하리라

## 오늘도 영생한다

해빛이 따스한 주작봉마루에  
우리의 투사들 오늘도 영생한다  
간고하였던 항일의 그 언덕엔  
꽃들이 다투어 만발했네  
투사들이여 그대들 생은 이 땅의 지지 않는 꽃  
후손들 기억하네 아름다운 그 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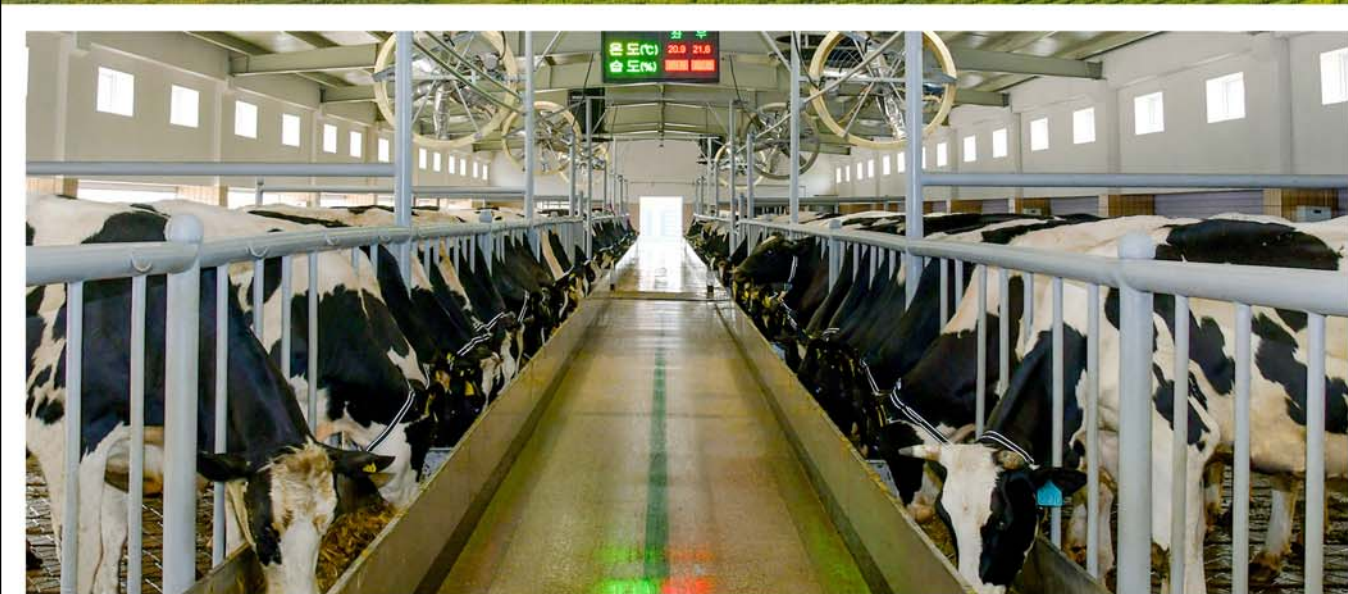
일제에게 빼앗겼던 내 조국을  
아름다운 생을 바치여 해방하였다  
더운 피 뿌리며 새겨온 위훈이  
이 땅의 해방을 안아왔네  
투사들이여 그대들 뉘는 꺼질줄 모르는 불길  
후손들 전해가네 투사들의 숨결을

해빛이 눈부신 이 나라 산야에  
오각별 찬란히 빛나네  
위대한 조국의 장한 그대들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섰네  
투사들이여 그대들 모습 영원한 금별로 빛나  
후손들 이어가리 투사들의 그 정신

#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



-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



최근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다.

사실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리라고 하면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태고적부터 내려오는 산천경개밖에는 눈에 안겨오는것이 없

었고 농촌의 세기적락후성이 다분했던 막바지골이 오늘은 현대농촌과 현대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본보기로 전변되었다.

삼광축산농장은 축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산도 하고 젖제품도 생산하는, 말하자면 축산

과 농산, 식료가공업이 일체화된 복합형기업체이다.

특히 축산현대화의 제반 요소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계절에 관계없이 젖을 생산할 수 있는 옥내사육방법이 도입되고 착유공정과 운반, 젖가공공정의 자동화실현, 축산농장의



제1분장 염소호동내부



제1분장 염소착유실



젖제품생산장 음료생산실

특성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 상황을 실시간 장악하고 분석, 지휘할수 있는 지능형통합생산 체계가 확립되었다.

농장의 변모는 그뿐하게 갖추어진 축산과 젖제품생산토대만이 아니다.

소층, 단층살림집들과 문화

회관, 문화후생시설인 삼광원과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 이채롭게 꾸려진 공원 등은 이곳 주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고있다.

삼광리에 새로 일떠선 건축물들 가운데서 제일 큰 건물들중의 하나가 운전군 삼광기술고급중

학교이다.

이 학교는 수십개의 교실들과 축산기초실습실을 비롯한 실험실들, 가상체험실과 교내방송실, 체육관, 야외학습터, 우유공급실 등으로 꾸려져있다.

축산과 농산을 기본으로 하여 기술교육과정이 집행되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 고향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빛내어갈 앞날의 주인들로 자라나고 있다.

삼광축산농장의 변천상을 체감하며 누구나 크나큰 걱정에 휩싸이곤 한다.

나라의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젖제품들의 일부



숙성실



시설모재배장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낮과 밤이 어려와서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젖제품이 풍족하게 차례지  
 게 하기 위하여 높은 산, 험한  
 령을 넘고넘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고 풍부한 산림  
 자원, 물자원을 가지고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에 유리한 삼광리  
 를 적지로 선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2월 삼광축

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시여 크  
 게 소문도 없이 변모된 삼광리  
 의 이 풍경은 한두해사이에 갑  
 자기 생겨난것이 아니라고, 새  
 것의 탄생이란 항상 그리하듯이  
 여기에도 결코 수월하다고 할수  
 없는 고심과 노력이 투여되고  
 순탄치 않은 과정이 동반되였다  
 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사회주의농촌발  
 전정책실행과 나라의 축산업을

세계적수준의 현대축산으로 확  
 고히 전환시켜나가는데서 나시  
 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삼광축산농장의 종업원들은  
 자기 고장의 연혁에 개벽의 새  
 페이지를 새겨놓은 긍지와 자랑  
 을 안고 고향땅의 발전과 부흥  
 을 위해 일해나가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리명국



삼광기술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자기 고향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빛내어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 형제미술가



만수대창작사 조선회창작단 실장 리경남과 유화창작단 미술가 리경준은 형제간이다.

이들형제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소질이 있었다. 특히 형인 리경남은 짚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소학교시절에는 제법 정물소묘를 하였는데 너무 신통하여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연고가 되어 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

동생인 경준은 형과는 달리 소학교때 축구소조에 다니었다. 하지만 천부적인 미술적재능이 있었던 동생은 훈련의 실참이면 공을 다루는 동무들의 모습을 화판에 옮기곤 하였다.

경준에게서 미술적재능의 싹을 찾게 된 축구소조 지도교원은 그의 손에 그림종이와 연필을 쥐여주며 앞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되어 동생은 형과 함께 궁전의 미술소조에서 그림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들형제는 화판과 붓을 동무삼아 성장하였고 평양미술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쳤다.

매일 밤을 잊다싶이 하며 그림을 그려도 이들은 힘든줄을 몰랐다.

하루가 다르게 그림솜씨는 늘어만가 그들이 그린 그림들은 여러 전시회, 전람회들에서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형은 대학시절 조선회 《불영대로 가는 길》을 창작하였는데 울창한 수림과 나무 등 묘사를 얼마나 섬세하게 하였는지 보는 사람들 누구나 그 길로 걸어가는것만 같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대학적인 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으며 국가소장품으로 되었다.

리경남은 졸업후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가로 일하게 되었다.

창작활동과정에 형은 《풍산개》와 《선구자의 궁지》를 비롯한 인물화들을 국가미술전람회들에 출품하여 선배화가들과 어깨나란히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동생도 형의 뒤를 이어 창작사에 배치받은 후 《기습》, 《계승자들》, 《선렬들의 넋을 새기며》를 비롯한 품위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들은 서로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미술작품 창작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창작토론을 하고있다.

늘 지각생이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노력한 동생은 국보적인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2019년에 공훈예술가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들형제는 똑같이 인물화를 특별히 잘 그리지만 그림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은 서로 다르다. 형은 세부묘사를 특별히 잘하며 동생은 대담한

필치로 원형인물을 진실하게 그려낸다는것이 동료들의 평가이다.

중년나이에 이르렀어도 이들형제는 서로 돕고 이끌며 창작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일본에 살고있는 작은아버지는 조국을 방문할때면 언제나 조카들의 그림을 보러 만수대창작사를 찾곤 한다.

그때마다 그는 《경남아, 경준아, 조국에 와서 너희들이 그린 그림을 볼 때면 이 작은아버진 정말 큰 힘을 얻곤 한다. 조국의 현실도 아름답지만 화폭에 담은 모습은 더 멋있구나. 너희 형제의 소원을 꽃피준 조국의 모습을 온 세상이 볼수 있게 화폭에 담아가거라. 나는 너희들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들형제는 오늘도 쉽없이 붓을 달리고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영호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의 일부

# 다종화, 다양화 실현에 힘을 넣어

-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제품의 품종수와 가지수를 부단히 늘려나가고있다.

최근년간 공장은 스케트와 룽상신발을 비롯한 종목별체육신발을 생산할수 있는 공정을 새로 꾸려 체육기자재의 다종화, 다양화실현에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로 하여 공장은 조업할 당시에 비해 제품의 종수와 가지수를 3배이상으로 늘였다.

공장이 이룩한 성과의 비결은 새 제품개발을 생산의 중심고리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간데 있다.

지난 시기의 성과와 경험에 비추어 공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과학기술보급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종업원들을 새 기술창조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데 보다 큰 힘을 넣었다.

결과 공업기술연구소의 역량

이 강화되어 새 제품개발사업이 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되었다.

얼마전에도 이곳 연구사들은 여러 형태의 축구공, 룽구공, 배구공들과 체육복장, 육체훈련기자재들을 비롯한 체육기자재들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기술에 의한 레이저재단기를 연구도입하여 운동신과 체육인가방 등의 형태를 개선하는데도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가고있다.

상반년기간에 공장의 종업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 개발하는 경식정구공, 5인야구공의 질량과 튼성 등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보장하였다. 또한 허리근육단련기자재와 누워밀기자재를 비롯한 능률높은 운동기자재들도 개발생산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려는 이곳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 《대성산》상표를 단 새로운 체육기자재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 기다리는 수업으로

-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에서 -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들이 학생들이 반기고 기다리는 수업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만경대구역 광명고급중학교는 실력이 높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 비결에 대하여 묻는 우리에게 장금성부교장은 《모든 수업의 질적수준을 제고한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학교에서는 우선 모든 분과들에서 교원들이 수업전준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모든 교원들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재내용뿐 아니라 참고서들과 연관과목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수업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과장들이 그 정형을 료해하고 수업준비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은 합평회를 통하여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대책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찾아 일반화하도록 하고있다.

수업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것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학교에서는 매 교원들이 진행하는 과목별수업들에 대하여 체계가 명백하고 알기 쉬운 수업,

해보기를 많이 하여 실효성이 높은 수업, 학생들의 실천활동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수업, 시험이나 발표에 대한 점수평가를 꼭꼭 해주는 수업 등 여러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월 1차이상 진행되는 교원들 호상간 교수참관을 통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마다 전교적인 교원모임에서 그에 따르는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교원들이 진행하는 수업들이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제고로 이어지게 하였다.

교원들의 교수경험을 일반화하고 학생들의 경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가지 전시회와 경연조직에 힘을 넣은것도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비결의 하나이다.

학교에서는 다매체편집물전시회, 교편물전시회, 분과별교수경연, 교육방법토론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교원들속에 실력경쟁열풍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주, 월마다 과목별학과경연과 외국어회화경연 등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학급별, 학생별실력경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하여 이 학교에서는 해마다 10여명의 7.15최우등상수상자(학교 전 기간 최우등을 쟁취한 중학교졸업반학생들에게 주는 영예상)들이 배출되고있으며 수많은 졸업생들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각급 대학들에 입학하고있다.

오늘도 이곳 학교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모든 수업들이 학생들이 기다리는 수업, 반기는 수업으로 되도록 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글 김대철, 사진 김영호





# 바드민턴선수들이 자란다

지도교원 석윤경

모란봉구역과외체육학교 여자바드민턴소조가 국내바드민턴계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곳 소조는 올해 진행된 제62차 전국체육학교체육경기대회 바드민턴경기(여자) 모든 세부종목에서 또다시 우승컵과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이번까지 9련승을 기록하였다.

국내패권을 양보하지 않는 이곳 소조를 두고 전문가들은 나라의 바드민턴선수후비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소조는 지난 기간 국내뿐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청소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당시 국제바드민턴전문가들속에서도 그들의 경기과정을 놓고 《그들은 민첩하고 순간이동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있었다. 특히 강타가 매우 위력했다.》라고 평하였다.

과외체육학교의 학생들이 국제경기에 나가 우승의 영예를 지닌것은 국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성과의 밑바탕에는 지도교원 석윤정의 노력이 안받침되어있다.

4.25체육단(당시) 선수로 있다가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그는 2016년에 이곳 지도교원으로 배치되었다. 소조운영을 시작하면서 그는 훈련의 과학화와 소조원들의 정신력을 높여주기 위해 중점을 두었다.

바드민턴과 관련한 최신자료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그는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경기전술과 기술동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었으며 실전에 적용해나갔다.

이 나날에 그는 《바드민턴경기승패에 작용하는 요인들》, 《바드민턴선수들의 속도힘발달방

법 몇가지》 등 10여건의 논문들을 집필하였으며 《바드민턴교육지원체계》1. 0, 《훈련분석지원체계》, 《바드민턴경기분석지원체계》를 비롯한 여러건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소조원들의 기술을 높여나갔다.

그는 공에 대한 빠른 반응과 이동에서의 민첩성, 공치기의 정확성과 다양성, 전술적인 경기의 식제고를 훈련의 5대고리로 정하고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한편 그는 소조원들의 정신력을 높여주는데도 관심을 돌리었다.

2019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청소년경기대회 바드민턴경기(여자단식)에 참가하여 우승한 한은별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의 훈련지도의 중점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당시 한은별의 우승을 놓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기술동작들이 원만한데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경기를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끌고나가는 이악한 품성에 비결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도교원 석윤정은 소조원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소유했다고 해도 높은 정신력을 지니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늘 강조하곤 한다.

2019년에 평양시체육학교부문에서 지도교원의 전형으로 평가된 그는 지난 기간 수십명의 재능있는 선수후비들을 키워냈다. 그들속에는 여러명의 국가대표선수들도 있으며 공화국청소년체육명수들도 있다.

국제경기과 국내경기들에서 금메달 130여개를 비롯한 수백개의 메달을 쟁취한 소조는 오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보다 활력있는 걸음을 내짚고 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석윤경은 소조원들의 기술연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 악성종양치료에 인터벤션기술을 도입하여



오늘날 의학과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진행기 및 말기종양의 치료는 의연히 세계적인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의학연구원 종양연구소 내파연구실의 연구집단이 이 문제해결에서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년전 암성질환치료에 도입되고있는 첨단과학기술들에 대하여 서술한 문헌을 탐독하던 조경철연구사는 하나의 자료에 초점을 돌리었다.

당시 암성질환치료는 조기암 때 근치적수술을 진행하고 그 이상의 병기에서는 수술전과 후

에 방사선요법이나 화학요법을 병합하고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방법들은 수술후에 합병증이 많고 재발률도 높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것 등 많은 부족점들이 있었다.

그런데로부터 의학계는 그 극복방도를 인터벤션기술에서 찾고있었다. 한마디로 인터벤션기술로 병기를 낮춘 다음 근치적수술을 진행하여 환자의 생존기간을 늘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조경철연구사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암성질환에 대한 우월한 치료방법을 모색하고있던 조경철

연구사는 지체없이 인터벤션기술에 대한 최신의학기술자료를 탐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일정한 파악을 한 그는 국내의 현실적조건과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국소인터벤션기술을 진행기 및 말기암치료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달라붙었다.

김기훈, 정성영, 홍정남을 비롯한 여러 연구사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먼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제작완성한 연구사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 전이 및 수술후재발된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

를 심화시켜나갔다.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연구사들은 거듭되는 실패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선행문헌자료들과 지난 시기 연구자료들을 분석해보면서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사들은 전이 및 수술후재발된 위암을 인터벤션기술인 동맥내화학요법으로 치료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신감을 가진 연구사들은 또 다시 인터벤션기술들인 동맥내화학요법과 복막온열화학요법, 전기화학요법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척하였다. 그리

고 그 치료적응증을 선정하는데 이어 우수한 고려치료방법들을 결합하여 림상실천에 적용하였다.

결과 림과절 또는 타장기전이 나 악성복수가 있는 위암, 결장직장암, 판소암, 유선암, 원발불명의 암, 중피종, 연부조직육종을 비롯하여 각이한 전이가 있는 진행기 및 말기암을 앓고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곳 연구집단이 도입한 치료방법들은 부작용이나 재발률을 훨씬 낮추고 생활의 질을 뚜렷이 개선시킨다. 또한 암의 병기를 최대로 낮출뿐 아니라 생존기간을 보다 늘일수 있다. 그중

에는 병기가 3, 4기로서 최대에 상수명이 1~6달이었지만 치료 후 3년만에 병조가 모두 없어지고 5~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생활을 하고있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홍정남실장은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첨단과학기술개척에서 첫걸음을 떼는데 불과합니다. 선진의학기술을 끊임없이 개척하여 환자들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기 위한 우리의 연구는 계속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상식

## 몸안의 독소를 없애는 식품 몇가지

인체의 파민, 기능저하, 암과 같은 질병은 몸안의 장기와 피가 유해가스, 먼지, 방사성물질 등 여러가지 독해물에 오염되어있는것과 밀접히 관계된다.

몸안의 유독성물질을 제거하려면 다음과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것이 좋다.

- 검정버섯: 혈액을 깨끗이 하고 몸안의 독을 해소시키는데서 좋은 작용을 한다.

- 돼지피: 몸안에서 췌신에 의해 분해된 다음 해독작용도 하고 백혈을 윤회하게 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러한 물질은 몸안의 먼지나 유해금속미립자와 화학반응을 일으킨 후 배설물과 함께 몸밖으로 배출된다.

- 신선한 과일즙과 남새즙: 혈액이 알카리성을 띠게 함으로써 세포속의 독소가 용해되어 배설물과 함께 몸밖으로 배출되게 한다.

- 미역: 방사성물질에 대한 화합력을 가진다. 미역의 콜로이드는 몸안의 방사성물질과 결합되어 몸밖으로 배출됨으로써 방사성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 록두즙: 맛이 좋을뿐 아니라 인체내 독물질에서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

\*

\*

# 관록있는 민족예술창조집단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봉화예술극장에서는 국립민족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는 민요와 대중가요를 민족기악, 민족무용과 배합하여 새로운 형식에 담아 형상한 종목들은 민족성이 짙으면서도 현대성이 조화롭게 결합된것으로 하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중들은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장단과 가락에 몸과 마음이 흠뻑 취하였다. 우리 민족음악이 체일이라는 찬탄이 절로 나온다.》, 《국립민족예술단의 공연은 역시 내용도 좋지만 민족적특색이 강한것이 인상적이다.》, 《우리의 멋과 향취가 살아숨쉬는 공연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공연은 민족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체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2.16예술상수상자인 공훈배우 남은하가 출연하는 소해금독주와 민족타악기재주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는 지난 시기 관현악으로만 형상되던 기존공식을 깨고 부드럽고 은은한 소해금의 독특한 음색으로 노래의 기본선률을 살리면서 장고,

북, 팽파리 등 민족타악기로 보조장단을 맞추어 경쾌하면서도 들쭉하게 연주되어 관중의 심금을 대번에 사로잡았다.

또한 현대가요 《조국과 나의 운명》을 민족악기 양금으로 특색있게 형상한 황련아배우의 출연과 19명의 가수들이 형상한 대중창원곡 《바다의 노래》, 《우리는 농장의 주인》, 《오

늘의 창성》, 《로동당의 정책은 좋다》는 민요풍의 고유한 멋을 잘 살린것으로 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로 대조되는 독특한 소리색갈로 쌍벽을 이루는 민요가수들인 박은주와 오향미의 여성독창노래 《빠죽새》와 《모란봉》은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군무 《장고



춤》과 가무 《황금나무 능금 나무 산에 심었소》, 민속무용 《3인무》는 민족적 향취가 진한 특색있는 룰동으로 사람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를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연출가 전송남은 《이번 공연은 민족음악발전의 력사와 전통을 꺾듯이 이어가려는 민족예술에 뜻을 둔 새세대 예술인들의 꾸준하고 이악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1947년 10월 4일에 창립된 국립민족예술단은 지난 70여년간 수많은 국내외공연을 통해 영원히 색이 바래지 않는 고상한 민족예술을 형상하는 창조집단으로 자기의 전통을 빛내

여왔다.

민족가극 《견우직녀》(1947년)로 창립 공연의 첫막을 올린 후로 예술단은 《심청전》, 《온달전》, 《춘향전》을 비롯한 여러 가극작품들을 창조 공연하였다. 1970년대에 예술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피바다》식가극 창작원칙을 구현하여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년), 《금강산의 노래》(1973년) 등을 창조하였으며 민족가극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고전주제의 가극창작과 가야금독주와 병창 《옹헤야》(1988년), 무용 《장고춤》, 《양산도》,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1997년) 등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고 현대

적미감이 흘러넘치는 기악, 무용작품들을 수많이 창작공연하였다.

예술단은 주체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가의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인민예술가들인 리면상, 김옥성, 성동춘 등과 인민배우들인 안기옥, 박동실을 비롯하여 수많은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 예술가, 공훈배우들로 성장하였다.

오늘 예술단에는 신인배우들이 중진을 이루고있다.

선배들의 창조정신과 기풍은 그대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의 거울로 되고있다.

재능있는 무용가로 등장한 30대의 신인배우 하승진은 창조활동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남김없이 기량을 가르쳐주고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선배들의 태도는 우리가 보다 진지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예술에 힘하게 하고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소해 금연주가인 공훈배우 남은하는 《예술작품은 단숨에 완성되는것이 아니라 반년, 1년, 지어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다듬어야 무대에 내놓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작품들이 대중의 생활과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할뿐만 아니라 시대에 부응해야 하기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민족음악발전에 기여한 예술단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 새세대 예술인들에 의해 지켜지고 계승되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류광혁



건강식품

공수

금수는 인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 순간을 보존하는 사람들

- 압록강돌사진제작소에서 -



사람들은 때로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곤 한다.

그 순간, 추억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압록강돌사진제작소의 창작가들이다.

1998년 9월에 첫걸음을 내딛은 이곳에서는 수십년세월이 흘러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영구보존할수 있는 천연돌사진들을 제작하고있다.

이들은 우리 나라의 개성지방에서 나는 천연검은돌에 인물을 새김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창작하고있다.

다른 사진과 달리 여러 단계의 세부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돌사진들에는 창작가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깃들어있다.

류철소장은 오랜 기간의 자연풍화속에서 얻어진 돌을 연마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진완성에 이르기까지 매 공정들에서 창작가들은 원형인물을 그대로 형상하면서도 립체감이 나게 하기 위하여 심혈을 바쳐가고있다고 하였다.

창작가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렬사들의 모습을 흑백색돌사진으로 형상하여 사람들에게 첫선을 보이였다. 2010년에 준공된 해산렬사릉과 2013년에 세워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등에 안치된 렬사들의 돌사진도 다 이들이 형상한것이다. 돌사진들은 유가족들과 전우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돌사진들은 태양열이나 자외선, 비물, 바람에 대한 견딜성이 매우 강하며 수명도 오랜것



제작소에서 제작한 돌사진들의 일부

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후 제작소에서는 주문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천연색돌사진도 제작하였다.

지난 기간 이곳에서는 수많은 고인초상과 련인, 행복한 가정들의 모습을 천연돌에 새기였다.

공화국영웅 김봉관렬사의 아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의 돌사진을 보며 아버지가 환생한것만 같아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해외동포들도 돌사진을 보고 마치 실재한 인물을 보거나 자연속의 생활환경을 그대로 마주한듯한감을 느낀다, 사진과는 다른 품위와 무게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많은 외국인들도 이곳에서 가족사진을 돌사진으로 제작하였다. 그들은 천연돌사진을 보며 《밝고 선명한것이 특징이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것만 같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글 엄향심  
사진 리영철



# 보양생들의 보금자리

- 평양양로원에서 -

얼마전 우리는 국제로인의 날을 계기로 평양양로원을 찾았다.

록음이 우거진 경치좋은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양로원의 웅자를 바라볼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날아가는 학의 날개처럼

처마를 뻗친 합각지붕, 고전미가 살아나게 예술적으로 형상된 울타리, 건물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며 특색있게 조성된 원림경관...

하나의 미술작품과도 같은 이곳의 전경에 심취되어 눈

길을 쉬이 떼지 못하는 우리를 최청심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양로원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보양생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찾아왔다

는 이야기를 들은 최청심원장은 우리를 여러곳으로 안내하였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1층에 있는 어느한 방에 들어서니 웃음이 한창이었다.

한 로인이 두손으로 옷을 모아잡고 《모야!》 하면서 우로 올리던진것이 정말로 《모》가 나오자 환성이 터져올랐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편의 로인도 《모 나오라!》 하면서 옷을 뿌렸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가 나오는 바람에 웃음판이 터지였다.

2층에 있는 오락홀에서는 열띤 장기경기가 진행되고있었다.

《장훈!》, 《명훈!》 하면서 공격하고 방어하는 두 로인의 장기수가 어긋비슷한지라 좁처럼 승부가 날것같지 않았다. 훈수군들의 열의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장기에 열중하는 로인들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은 우리는 운동실로 발걸음을 돌리였다. 여기서는 여러명의 로인이 자전거운동기재, 흔들이식걸음

운동기재 등 각종 운동기재에 올라 운동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와 만난 96살의 조효경할머니는 매일 운동을 하니 건강도 좋아지고 힘도 솟는다고 하면서 세월이 좋으니 이렇게 오래 사는것이 아닌가고 하였다.

결에 있던 로인들도 저저마다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추울세라 더울세라 받아안은 새옷과 신발, 첫물과일과 매끼 식탁에 오르는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마움의 눈물이 앞선다고 하는 윤명희할머니의 이야기며 영화와 신문, 소설책도 보면서 생활하니 감정정서도 더욱 풍부해진다는 한보비할머니의 이야기...

생활상편리와 건강, 감정정서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헤아려 그존히 꾸려진 리발실과 미용실, 목욕탕에서 봉사를 받고나면 더 젊어진다고 보양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한 보양생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래동안 기침병을 앓았는데 양로원의 경치는 물론 물과 공기가 좋아서인지

뚝 떨어졌다고, 그러니 어떻게 젊어지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실로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가슴이 후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예로부터 로년과 로쇠는 시간표대로 온다는 말이 있다. 허나 여기 보양생들은 국가의 혜택속에 인생의 로년기에도 청춘기를 노래하며 즐겁고 기쁨넘친 삶을 누려가고있으니 평양양로원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는것이다.

하기에 이곳을 찾은 한 외국인 은 늙은이들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 해당 나라가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할수 있다고, 이 양로원은 훌륭한 집이며 본보기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우리의 취재도 끝나고 밤하늘에는 몇별들이 반짝이였다. 그러나 양로원의 불빛은 창가마다에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이곳 보양생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대동강의 유정함을 더해주며 정답게 울리였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 물놀이장에 넘치는 웃음소리

퐁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 잡고있는 문수물놀이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있다.

손님들은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을 오가며 각이한 구조들과 환경에서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실내물놀이장의 크고작은 구조들과 장쾌하게 쏟아지는 인공

폭포며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맡긴 사람들의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특히 열림식물미끄럼대와 단김식물미끄럼대에서 환성을 지르며 승벽내기로 미끄러져내려오는 사람들의 희열에 찬 모습은 실내물놀이장의 이채로움을 더해준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꾸려놓은 수조와 자식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물놀이를 할수 있게 만든 수조에서도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환성이 그칠새 없다.

평천구역 해운1동에서 살고있는 김진향녀성은 《맑고 시원한 물에 몸을 잠그고있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각종 물미끄럼대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야외물놀이장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유의 광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

야외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집중되고 웃음소리 또한 높은 곳은 급강하물미끄럼대와 급상승물미끄럼대, 조약수조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높고 경사가 대단히 급하여 지쳐내리는 속도가 빠른 급강하물미끄럼대는 공포와 흥분,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남성들

특히는 청년들이 위세를 뽐내는 곳으로 되고있다.

2명이 2인용고무구명대를 타고 미끄러져내리는 급상승물미끄럼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이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지쳐내리다가 거의 수직경사에 가까운 물미끄럼대를 타고 상승하였다가 다시 내려지칠 때에는 미끄럼대를 타는 사람은 물론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슬아슬한 감정을 느낀다.

조약수조에서도 감탄과 폭소가 그치지 않는다.

재치있는 조약동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용감하게 몸을 날렸으나 수평으

로 물면과 통쾌하게 상봉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능있는 희극배우도 무색케 할 이런 모습을 구경하는것도 즐거운 휴식으로 되고있다.

준전덕경리는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보는것이지만 언제 보아도 새롭고 즐겁기만 합니다. 손님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종업원들 누구나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긍지와 희열을 느끼곤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성영  
사진 김영호, 리영철



# 조선 옷의 특성을 살려

평천구역종합양복점 여자양복점에서 조선옷을 잘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 열린 봄철피복전시회-2025에서 이곳 양복점은 우리 여성들의 감정정서와 미감에 맞는 우아하고 세련된 조선치마저고리를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선옷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리예성재단사는 《조선옷을 짓는데서 기본은 형태나 색, 무늬를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독특한 비례, 부드러운 선, 룰동성 등 조선옷의 형태적특징을 살리는것과 함께 색선정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분홍색, 하늘색, 미색을 비롯한 은은한 색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손님들의 나이와 얼굴

형태, 피부색에 어울리는 옷감의 색을 선택하여 조선옷의 세련미가 한껏 살아나도록 하는것이 이곳 봉사자들의 제작묘기라고 할수 있다.

한편 이곳 봉사자들은 옷감의 색깔에 조화되는 우아한 무늬장식으로 조선옷의 양상을 보다 이채롭게 하고있다. 정교하고 섬세하며 회화적느낌이 강하게 안겨오는 무늬장식들은 조선옷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 주고있다.

조선옷제작에서 비반복성은 이곳 봉사자들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양복점에서는 주문자들의 몸매와 기호, 취미에 맞게 설계와 재단, 가공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 제품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개성이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독특한 장식수법들이 도입된

결혼식옷과 명절옷, 은근한 색 바탕에 고전무늬와 현대적인 무늬들을 결합시킨 조선치마저고리를 비롯한 이곳 봉사자들이 제작한 조선옷들은 그 인기가 대단하다.

락랑구역 락랑2동에서 사는 김성경녀성은 《이곳 양복점에서 만든 조선옷을 입었는데 색깔이나 무늬 등 모든것이 나의 몸매와 얼굴색에 잘 어울립니다. 정말이지 조선옷을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날만합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이 깃들어있는 조선옷을 입고 기뻐하는 손님들을 볼 때면 직업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이곳 봉사자들이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로



지난 4월에 진행된 제39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 목공예품들이 있었다.

려객기, 려객선, 자전거, 고전미가 나는 살림집 등을 수십

가지 모형들로 형상한 목공예품들은 하나같이 3차원적인 장식효과가 두드러져 누구에게나 실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새로 일떠서는 여러

형식의 농촌살림집들을 형상한 목공예품들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제품들은 첨단기술개발교류소에서 내놓은것들이다.

일명 파즐(Puzzle)산업이라

고 하는 목공예품들은 그 가공기술이 섬세하면서도 정교하고 흠잡을데 없다.

전혀 색을 쓰지 않으면서도 한 평면에서 여러가지 색을 도출해내고 여러층의 부각효과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 완성되고있는 매 공예품들에는 보통 300개이상의 부분품들이 들어간다고 한다.

소장 박정철은 공예품제작에서 핵심기술은 재단의 최적화 실현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제작집단은 매 부분품들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파라메

터를 설정한데 기초하여 최적화프로그램을 리용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설계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교류소에서는 목공예품들에 장식효과와 함께 여러 기능성도 첨부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사람들의 생활에 보다 가

깝게 접근시키고있다.

공예품들에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소나무향과 먼적외선, 음이온이 방출되게 기능을 첨부하고있으며 장식효과가 큰 여러가지 모양의 시계공예품도 제작하고있다.

착상이 새롭고 형식이 독특하면서도 기능성이 첨부된 목공예품들은 여러 전시회와 축전, 전람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영철



#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 《선생님은 나의 은인입니다》

《외상성수지진전증? 선생님, 전 이런 병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이제 내가 세 번 치료하면 다시 운동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 총련 조선대



평양의학대학 박사  
천은주

학교 졸업학년 학생조국방문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왔던 허공옥학생과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 고려소아과학연구실 연구사 천은주선생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일본에서 허공옥학생은 운동을 하다가 오른손을 상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오른손은 격렬하게 떨었고 도저히 굽힐 수도 펴 수도 없었다. 2년반동안 그는 일본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손은 악기

를 치는듯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떨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조국으로 왔고 천은주선생의 앞에 나타났다.

팔십고령의 천은주선생은 환자의 상태를 일별하고 그의 척추를 눌러보며 외상성수지진전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다.

약속한대로 세번째 되는 날 천은주선생은 그 어떤 약물이나 기재도 없이 맨손으로 환자를 엮디게 하거나 모로 눕게 한 상태에서 척추와 경추 등 여러 부위에 대한 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약 20분 지나 환자는 일어서서 자기의 오른손을 눌러보았다. 그렇게 떨던 오른손이 떨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자유자재로 펴 수도 굽힐 수도 있었다.

허공옥학생은 너무도 믿기 어려워 자기의 오른손을 쓰다듬으며 더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가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있었다.

그와 함께 왔던 동료들은 놀라운 현실앞에 《일본에서는 도저히 고칠수 없다고 하던 손이 바로 조국에서 전통의학치료로 고쳤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허공옥학생은 천은주선생님의 손을 잡고 몇번이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선생님은 나의 은인입니다.》

천은주선생님은 허공옥동포에게 《내가 은인인것이 아니라 조국이 은인이다. 해방전 머슴군의 자식이었던 내가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할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준것이 바로 조국이다. 조국은 너와 나 우리모두의 은인이다. 어디에서 살던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거라.》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 전통의학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천은주선생(84살)은 공훈과학자이며 원사, 교수, 박사이다.

조국의 고마움을 너무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그는 젊은 시절 열심히 공부하였고 고려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수많이 내놓을수 있었으며 전통의학부문에 서 무시할수 없는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의 손에 의해 병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20여년간을 신우신장염으로 노독증성혼수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선생님의 침1대와 수기치료를 받고 깨끗이 병을 털었다는 중년녀성도 있고 수십년간 앓던 허리병을 고친 남성도 있다.

그런가 하면 다발성척추골절로 운신 못하던 환자를 20일만에 정상상태로 만들었고 당뇨병성급성폐염말기환자를 부항치료로 일으켜세웠으며 많은 어린이환자들에게도 웃음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모두가 천은주원사를 은인이라고 부르고있다.

은인이라고 부른 환자들속에는 중국, 메히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외국인도 있다.

그들은 선생님의 손은 처녀애의 손처럼 부드럽다고, 이 손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병마에서 구원하는 약손이라고 하였으

며 천은주선생님이야말로 전통의학의 대가라고, 조선의 전통의학이 제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여러 나라들의 의학대학에서 천은주원사를 초빙강의에 초

청하기도 하였다.

나라에서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천은주원사를 여러 대회들의 대표로 불러주었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

## 《선생님의 손은 보배손입니다》

천은주선생님의 딸인 천영이는 대동강구역병원에서 파장으로 일하고있다.

유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천파장의 손도 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환자들은 말하고 있다.

실지 그는 지난 기간 척추타

여러 질병을 특별한 기구나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또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짧은 기일안에 깨끗이 완치시키는것이다.

그는 환자의 척추를 만져만 보고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한다.



대동강구역병원 회복치료과 파장 천영이

박상, 추간판탈출증, 다장기기능부전, 경추증으로 인한 심한 후두아픔, 성대부종, 언어장애, 전신타박상, 전신순환장애, 전신강직성마비, 고열과 경련 등으로 신고하던 환자들을 일으켜세웠고 건강을 되찾게 하였다.

천영이파장의 특기는 수기료법에 의한 척추교정방법으로 경추증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에 이르는 여러가지 척추질환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체의

지난해 12월 대동강구역 청류1동에서 살고있는 한 할머니가 3살 난 손녀애를 업고 그를 찾아왔다. 로인은 그를 만나자마자 손녀애가 아직 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날 천영이파장은 어린애의 척추를 만져보고 천장관절아탈구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그에 맞는 척추교정치료를 진행하였다. 치료를 시작해서 열흘만에 어린애는 잠깐 섰으며 40일만

구에도 입사시켰다.

은퇴하여 집에서 여생을 보내도 되지만 천은주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치료활동을 벌리고있다.

에 한손으로 침대를 짚고 일어서서 혼자 걸었으며 두달만에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펴기도 하였다. 일곱달만에는 출생후 첫 걸음마를 떼게 되었다. 온 호실, 병원이 어린애의 걸음마를 지켜보았고 할머니는 너무도 기뻐 천영이파장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듣던바그대로 선생님의 손은 보배손입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심정만이 아니라 천영이파장의 손에서 병을 고친 환자들이 한결같이 터친 말, 인민의 평가이다.

천영이파장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오면서 우리 나라의 전통의학에 대한 남다른 매력과 함께 아버지의 대를 이으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의사가 된 딸이 첫 출근을 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이손으로 지켜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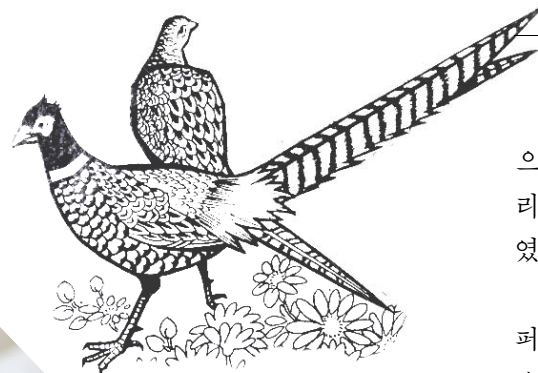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천영이파장은 높은 의술과 정성으로 치료활동을 진행하였다.

천영이파장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애 그 딸이라고 부르고있다.

나라에서는 그를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으며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행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에 대표로 불러주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 전통음식 꿩백숙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산과 들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동식물들로 체질과 구미에 맞는 음식문화를 창조하여왔습니다.

그 과정에 건강에 좋은 전통음식들을 력사기록들과 구전, 식생활관습으로 후세에 남겼습니다.

그가운데는 조선속담에도 있고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민요 《까투리타령》에도 반영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명산물인 꿩을 주원료로 하는 수십가지의 요리들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후가 온화하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산림이 우거져 동식물상이 풍부하기때문에 꿩

의 적합한 서식지로 되어왔습니다.

새류의 보호에 관한 첫 기록으로 알려진 《애물의》(1400년)라는 옛 도서에 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꿩》이라는 이름을 그 울음소리를 본따서 지었으며 수꿩은 장끼, 암꿩은 까투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생김새가 아름다운 꿩을 관상용으로 기르기 시작하다가 그 특이한 맛과 약리적특성으로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한 우리 인민들은 18세기말부터는 꿩의 번식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신들이 돌아갈 때면 산꿩을 기념으로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로로 하여 우리나라의 꿩이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꿩이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퍼진것은 1801년이며 그후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옮겨졌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꿩은 우리 나라의 명산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기르고있으며 그 이름도 《고려꿩》으로 통용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꿩이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퍼져 번식하고있는것은 몸집이 아름답고 특이한데도 있지만 우리 인민이 창조한 다양한 꿩고기음식들이 맛이 좋고 독특하여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졌기때문입니다.

고대시기부터 창조되어 발전하여온 꿩고기음식은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전통음식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고 대대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고려시기에 꿩은 궁중에서나 민간에서 식용뿐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널리 리용되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서는 꿩백숙을 비롯하여 꿩구이, 꿩찜, 꿩고기회, 꿩고기포 등 전통적인 꿩고기음식들이 적극 발전하면서 민간에서는 설음식을 비롯한 명절음식, 별식으로 연회상이나 수라상에도 반드시 놓이곤 하였습니다.

민간에서는 단백질함량이 높고 광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꿩을 간기능보호와 콩팥계통질병, 당뇨병을 비롯한 질병치료와 어린이들의 회충구제에 효과있게 리용하였습니다.

조선꿩은 고기맛이 달고 연하며 향기롭고 파삭파삭한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인민들은 다양한 료법으로 가지각색의 꿩고기요리의 특색을 살렸는데 특히 꿩백숙이 유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숙이라고 하면 기본음식재료의 진미를 그대로 느낄수 있도록 향신료들을 넣지 않고 끓여낸 음식인데 꿩백숙은 보기에도 산뜻하고 국맛 또한 감미로와 조선명료리로 일러왔습니다.

이런 료리방식은 꿩고기의 진맛과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료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것은 꿩을 선택할 때 음력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즉 서리가 내린 늦가을과 겨울의것을 택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꿩백숙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음식감으로 꿩, 오이, 도마도, 부루, 소금, 간장, 파, 마늘, 겨자와 오미자껍질을 준비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꿩을 연한 소금물에 넣고 오미자껍질과 함께 삶아낸 후 다 익은 꿩을 통채로 혹은 저며서 간장에 다진 파와 마늘, 겨자, 닭은 참깨를 두고 만든 겨자양념장과 함께 상에 냅니다.

꿩백숙에 오미자껍질을 넣고 삶는것은 꿩고기의 단맛을 살리면서도 오미자의 맵사한 맛을 곁들여 료리의 맛을 진하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전통음식 꿩백숙은 인민들의 식생활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 장려되고있습니다.

전국료리축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해 꿩백숙에 대한 료리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특히 평양시의 대성구역에 자리잡고있는 려명 꿩고기료리전문식당과 황해북도 경암산기슭의 민속거리종합식당 등 전국도처에 꾸려진 꿩고기료리전문식당들과 급양봉사망들에서는 꿩백숙을 비롯한 꿩고기료리들이 봉사되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되고있습니다.

꿩백숙은 지난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조선력사유산연구소 실장 조일경



# 철성문

철성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내성의 북문으로 처음 세운 후 고려때 고쳐짓고 1711년, 1764년에도 다시 지었다.

철성문이란 이름은 북두칠성쪽에 있는 북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문은 성벽의 연장으로 되는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되어있으며 양쪽성벽을 약 10m쯤 사이나게 어기게 쌓고 그 두 성벽사이를 이으면서 가로 세웠다. 이 성문에서는 한쪽 성벽을 성문앞쪽으로 내밀어 쌓고 그끝을 보강하여 웅성으로 리용하였다.

축대는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고 거기에 무지개문길을 냈다. 축대우에는 성가퀴를 쌓았으며 문루를 세웠다.

문루는 정면 3칸(7.38m), 측면 2칸(4.36m)

의 홀처마합각집이다. 문루의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세운 홀림기둥은 가운데간을 넓혀 중심을 강조하였다. 건물에는 화려한 모루단청을 입혀 그 품위를 높이였다. 문루는 규모가 작은 편이나 구조가 간결하면서 밑부분의 복잡한 구조와 잘 어울리어 위엄있게 보인다.

철성문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가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이 대병력으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철성문에서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들이 평양성을 일시 강점하였을 때 철성문으로 맨먼저 쳐들어가 격멸소탕하였다. 오늘 철성문은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글 김성경

지명유래

## 신의주시

신의주시는 압록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안북도 소재지이며 국경도시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의주군의 한개 지역으로 있었다. 그후 의주군에서 갈라져 새로 내은 지역이라고 하여 신의주라고 하였다.

1923년에 평안북도의 소재지로, 1947년에 신의주시로 되었다.

해방후 신의주시는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농업과 수산업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시에서는 건설기계, 방직기계, 전기기계, 채굴설비들과 야금, 화학, 건재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이 생산되고있다.

이와 함께 경공업과 농업, 축산업도 발전하였다. 특히 위화도지구에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새로 일떠서 도내인민들에게 남새를 떼구지 않고 보장하고있다.

신의주시는 오늘 현대적인 공업도시, 국경관문도시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 \* \*



## 조선장기수풀이 (45)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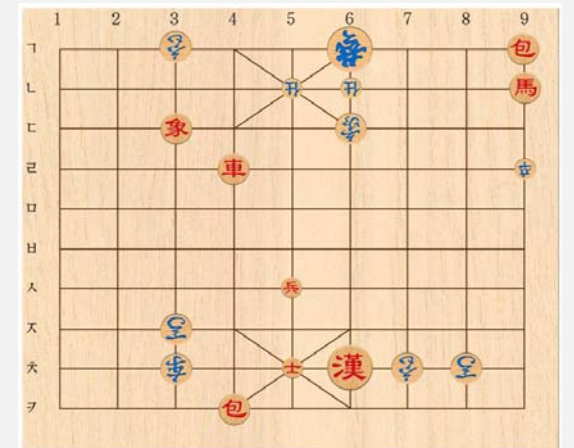
장훈 한번에 열두수 얻는다

한번의 《장훈》으로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켜놓았거나 수가 앞서게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장기를 둘 때 소심성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공격적인 성격을 띤 수를 써야 형세를 자기의 전술적의도에 맞게 유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장기수풀이 (44)에 대한 답

ㄷ7말 ㄱ6, ㄴ5차 ㄱ5, ㄷ8차 ㄷ4, ㄴ4궁 ㄷ4, ㄱ2차 ㄱ4, ㄱ5차 ㄱ4, ㄴ4상 ㄱ7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 약산동대

약산동대는 우리 나라 명승지의 하나이다. 평안북도 녕변군의 구룡강연안에 솟아있는 약산동대는 제일봉, 동대, 학벼루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것을 통털어 약산이라고 한다.

봄철의 진달래로 이름난 약산동대는 경치가 아름답고 전망이 좋아 예로부터 명승지로 손꼽혀왔다.

약산이란 이름은 이 산에 약초가 많고 약수가 난다는 데로부터 생겼다고 한다. 동대라는 이름은 녕변이 지난 날 무주, 연주, 위주로 나뉘어져있던 시기에 무주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대라는 뜻에서 불리워진것이다.

약산동대는 그리 험준하지 않으며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와 바위들, 울창한 수림과 철에 따라 피는 갖가지 꽃들 그리고 유적들로 하여 아름다운 풍치를 나타낸다.

특히 봄철에 온 산을 연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로

하여 약산동대는 아름답다. 또한 여름의 짙은 록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도 황홀하다.

약산동대에서 절승을 이루는 곳은 제일봉, 동대, 학벼루 등이다. 제일봉은 약산동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좋은 전망대로 된다. 마치 농립모를 엮어놓은듯 우뚝 솟은 제일봉에 오르면 약산동대를 감돌아흐르는 구룡강과 멀리 조선서해로 유유히 흐르는 청천강, 대령강이 보인다. 동쪽으로 멀리는 평안북도에서 이름난 룡문산의 웅장한 자태가 아득히 보인다. 발밑으로는 옛 성터로 둘러싸인 녕변읍이 한눈에 안겨오고 남서쪽으로는 안주, 박천 일대의 기름진 들판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제일봉과 잇닿은 동대에는 거북바위로 불리우는 바위를 비롯하여 류달리 회고 정가로운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그가운데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거북바위이다. 이 바위우에는 두마리의 거북기가 나란히 놓인듯한 돌이 있다. 거북바위는 판모양의 화강암이 오랜 세월 풍화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묘한 바위로 되었다. 이 바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학벼루는 약산동대 북쪽끝에 절벽을 사이에 두고 솟은 바위봉우리로서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명소이다.

약산동대에는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재능과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옛 건물인 천주사와 서운사를 비롯한 유적유물들도 있다.

민요 《평북녕변가》와 함께 널리 알려진 약산동대는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명승지이다.

글 김대철





참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